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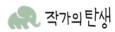


# 마음이그랬어

글 · 그림 허브티







### 작가의 말

오전에는 주부로 또한 다양한 배움을 하는 학습자로 살다가 오후에는 직장인으로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살아갑니다.

봄의 절정 5월.

난생처음 그림책 창작에 도전하여 작가처럼 고심하며 소중한 날들을 지냈습니다. 어느새 가을.

첫 열매를 맺은 흥분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듯합니다.

'수요일엔 빨간 장미를' 노래가 있다면 나의 수요일엔 '그림책이 좋아서' 프로그램이 설렘으로 저장되어있습니다.

2022년 도서관·박물관·미술관 1관1단 그림책이 좋아서

지은이 허브티

**발행일** 2022년 11월 28일 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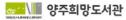
펴낸곳 양주희망도서관

주 소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 78-47



문화체육관광부





제 작 (주) 작가의탄생

### [비매품]

- \*본 도서는 2022년 도서관·박물관·미술관 「1관 1단」 사업에 선정되어 발간하였습니다.
- \*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.
- \*사업 안내 및 홍보 이외에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.

## 마음이 그랬어

글 · 그림 허브티



















수수하면서 은은한 향긋함에 매료되는 허브티 마시는 걸 좋아해. 누군가와 담소하며 마셔도 좋고, 나에게 집중하며 혼자 마시는 것도 좋아.







그럼...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꺼내 볼까?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. 조금 더 친근한 리코더부터 시작해볼까?



목공예도 해보고 싶어. 도마랑 컵 받침 같은 소품들을 내 손으로 만들어 써보고 싶어.





### 나이 듦에 대하여...

나이 든다고 해서 서글픈 것만은 아니에요. 치열했던 젊은 날엔 알지 못했던 삶의 깊이를 알아가니까요. 의욕에 미치지 않는 나의 능력과 상황에도 의연해질 수 있어요.

주변을 둘러볼 줄 아는 느긋함도 생겨나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감사해할 줄도 알지요.

나를 발견하게 해 준 마음아.
나이 들어가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준 마음아.
어느 나이로 살든지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걸 가르쳐 준 마음아.

참 고마워!

